

교회소식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부활주일(Easter)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하나복의 제자훈련 1단계인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의 신청자를 받습니다. 싸인업해 주세요.
4. 예배 후 부활절 식사교제(potluck)가 있습니다.
5. 부활절 특별헌금은 불우한 이웃과 선교지를 돕는 미션 펀드로 사용됩니다.
6.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 8일 : 전아리아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윤바울 / 설교번역: 강지연
- 4월 안내 및 봉사: 청년 목장

*향후 교회 행사 (Upcoming Event)

- Little Bit Better : 4/26(Sun), 10 am
- 다하나 캠프 : 5월 30-31(토,주) @ Good Earth Village

*성서일과 Lectionary (제 14주)

렘 31:1-6, 시 118:1-2, 14-24, 행10:34-43, 마 28:1-10

교회세운날 2017.6.11

26-14

4월 5일 (부활 주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일예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Zoom으로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담임목사(Senior Pastor) : 김경헌 목사 (213-357-7614)

예배순서

인도자: 김경헌 목사

-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뱀전 1:3-4 ———— 인도자
- 신앙고백 ————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 기도 ———— 전미영
- 주일학교 이동 ———— 주일학교 교사 및 학생
- 찬송 ————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같이
- 성경봉독 ———— 요한복음 11장 38-44절 ———— 인도자
- 설교 ————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 김경헌 목사
- 성찬식 ———— 다같이
- 봉헌찬송 ————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보오니 (1절) ———— 다같이
- 봉헌기도 ———— 인도자
- 교회소식 ———— 인도자
- *파송찬양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다같이
- *축도 ———— 인도자

* 표에는 일어납니다.

목회편지 /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봄비가 토닥이듯 대지를 흠뻑 적시며 잠자고 있는 생명들을 조심스럽게 깨우는 듯합니다. 봄비가 고맙고 반갑기만 합니다. 봄비를 머금은 대지는 곧 있으면 새싹들을 틔우고 생명의 잔치를 시작하겠죠.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교회전통의 부활절 인사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부활을 뜻하는 말이 ‘다시 일어서다’라는 뜻의 재기라고 합니다. 죽었던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삼일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죠(요 12:24). 부활은 그렇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게 됨을 알려주는 매우 뜻깊은 사건이죠. 성경은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의 부활을 말합니다.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잠자던 자들이 홀연히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죽은 성도들과 다시 만난다는 것은 매우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요즘도 형제들은 자신들의 전화기 속에 살아 있는 생전의 아버지를 담은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가족 방에 공유하며 아쉬움을 달랠합니다. 저도 지난 여름 주님의 품에 안기신 아버지를 다시 볼 날을 기대하며,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보내드린 아쉬움을 달래보기도 합니다. 성도의 부활과 영생을 믿기에 부활의 첫 열매되신 예수님의 부활이 감사하고 귀하기만 합니다.

아이들 방학이 왜 항상 고난 주간에 있을까요? 부활절 끝나고 방학을 맞으면 더 행복할텐데요. 어쨌든 노회의 시찰회 모임도 있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시카고를 방문했습니다. 시찰회 목사님들과 식사 교제를 하고 그 분들이 안내하는 시카고 곳곳의 기독교 유적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권유로 이번엔 휘튼 칼리지를 방문했습니다. 대학생 시절 미국의 학생 부흥 운동을 말할 때 꼭 언급되던 학교가 휘튼이었기에 한 번 꼭 와보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방문해 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모교이기에 휘튼 칼리지에 목사님의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더군요. 초기 미국의 청교도들부터 시작된 복음 전도의 역사를 되짚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역과 생애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을 아이들과 함께 둘러본 것이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던 강대상 위에서 아이들을 세워보고 말씀을 전하는 시늉을 내보라 하는데 역시 막내 녀석이 끼가 보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들었던 목사님의 생전 육성 설교 내용을 기억하고 말하더군요. 시카고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외에도 무디 목사님이 활동하셨던 곳이고, 무디 목사님 기념 교회에 가면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목사님의 발자취를 들을 수 있다고 하니, 다음에는 꼭 들려봐야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깨닫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